

국내외 연구인재 양성 국제기구와 '맞손'

농촌진흥청, 농업 기술 관련 국제기구와 훈련 과정 공동 운영 예정식 세계채소센터·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역량 강화 교육 추진

25일까지 세계채소센터·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역량 강화 교육 추진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주제를 △채소 △토양 △병해충 △식량 생산(벼) △첨단기술 교육을 순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첫 번째로 세계채소센터와 함께 지난 10일부터 19일까지 태국에서 아시아 13개국 31명 연구자가 참석한 가운데 '채소 생산기술 향상'을 위한 품종 육종 및 병해충 관리 기술' 훈련을 추진했다.

또한 23~25일에는 유엔식량농업기구와 공동으로 아시아 13국 연구자 60

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토양 정보 구축을 위한 기초역량 훈련'을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이 교육을 통해 연구자들은 디지털 토양 지도 구축에 필요한 토양조사 표본 설계를 익히고 토양 정보 분석 및 정보(데이터) 관리 방안과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향상 방안 등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들 연구자 외에도 네덜란드 비헤닝 현대화연구소,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국제마작연구소 등과 협력해 병해충 발생 진단 분석 기술과 벼 육종 및 재배관리 기술, 첨단 농업 기술 훈련 과정을 기획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와 손잡고 추진하는 연구자 역량 강화 훈련이 국내외 연구자 간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고, 국제적 연구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기술협력국 김광용 국장은 "각 분야 세계 최고의 국제기구와 협력해 미래 농업을 이끌어 갈 유망한 연구자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국내외 연구자 간 최신 연구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더욱 견고한 협력체계를 다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농촌진흥청은 국제기구 또는 국제기관과 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농업 기술협력 대상국 연구자와 우리 측 연구자의 연구 역량을 강화하는 훈련 과정을 확대, 개설한다고 밝혔다.



하림은 지난 25일 익산 사업장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하림, MZ세대 직원과 소통·화합의 장 마련

종합식품기업 (주)하림(대표이사 정호석)이 세대별 가치관과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공감으로 유연한 조직문화를 구축하기 위한 임직원 소통행사를 마련했다.

하림은 지난 25일 익산 사업장 소재에 근무하고 있는 차장급 이하 직원을 대상으로 'CEO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CEO와 직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게임과 함께 시작했다. 정호석 대표의 성공 스토리 강연과 함께 앞으로의 경영 방향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어 '인생 선배에게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라는 주제로 CEO와 직원들이 대화를 통해 서로를 좀 더 알아가는 시간도 마련했다. 사전 접수된 질문에 정호석 대표가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 회사

복지, 건강관리 비법, 결혼 조언 등 평소 CEO에게 묻기 힘든 주제들로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정호석 대표는 슬럼프 극복 방법 등의 질문에 오랜 경험을 지닌 인생 선배로서 따뜻한 위로와 지지로 공감을 표현했다.

이번 토크콘서트에 참여한 식품 안전팀 류은지 사원은 "다양한 주제들로 CEO와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며 "직장 선배이자 인생 선배인 사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회사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정호석 대표이사는 "오늘 토크콘서트에서 우리 직원들의 생각을 듣고 어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지 소통하고 싶었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기자

전북농협, 2024년 농정활동 강화를 위한 시군지부 핵심역량 교육

전북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현장·실무 중심의 사업체계 확립

전북농협(본부장 김영일)은 지난 25일 대외협력 및 농정활동 강화를 위해 시군지부 직원들과 함께 핵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2024년 더 친친보는 전북농협 구현을 위해 현장과 실무중심의 사업체계를 확립하고 농협의 핵심 추진사업에 대해 공유하기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18일에 출범한 전북특별자치도의 새로운 환경에 맞춰, 전북농협이 추진하는 사업을 재정비하고, 고향사

랑기부제와 농업인왕진버스 등 농업인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들이 심도 있게 논의 되었다.

또한, 회의 참석자 전원은 범농협 윤리경영실천캠페인 3행(청렴·소통·배려)·무(사교·갑질·성희롱) 실천 결의대회를 함께하여, 청렴하고 신뢰 받는 농협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였다.

김영일 본부장은 "전북농협은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아 농업현장·실무중심의 다양한 사업 발굴과 협력체



전북농협은 지난 25일 대외협력 및 농정활동 강화를 위해 시군지부 직원들과 함께 핵심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계 확립으로 농업인과 도민으로부터 더 칭찬받고 받고 사랑받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가 직접 답변하기도 했는데 회사

바이오진흥원, 농업·기업간 연계강화사업 대상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바이오 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은 오는 2월 14일까지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에 참여할 도내 농업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과 기업간 연계강화사업'은 도내 농산물 생산자단체와 식품기업

간 가공용 농산물 계약재배를 통해 안정적 판로확보 및 농가 소득 증진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도내 생산자단체 12개소와 식품기업 10개소 등 총 22개소를 선정, 지원하여 계약재배 403농가에 85억원의 도내 농산물의 판로를 연계하는 상생협력 성과를 거뒀다. 공모분야는 가공용 농산물 생산자

원(12개소)과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10개소)이다.

지원 대상은 '가공용 농산물 생산 지원'의 경우 식품업체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공급하는

생산자단체이다. '가공용 농산물 이용 지원' 분야는 생산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농산물을 조달받는 중소 식품기업이다.

'가공용 농산물 생산지원'의 지원 한도는 참여농가수에 따라 최대 4,000만원(자부담 20% 별도) △교육 및 컨설팅 △품질관리 △영농환경개선 △공통 장비·시설임차 △계약재배 거래관련 금융 등을 지원한다. /김옥기 기자

서천시장 화재 피해 500억원 금융지원

전북은행, 소상공인 등 최대 5000만원... 최고 1.0%p 금리 감면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서천시장 화재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개인 및 가계, 중소기업 등을 위한 500억원 규모의 긴급자금 지원을 위해 지난 26일 밝혔다.

지난 22일 충남 서천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인해 지역 소상공인들의 큰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지역 거점은행인 전북은행이 신속한 피해 극복을 위한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이번 지원 대상은 서천특화시장 화재 피해를 본 개인 및 소상공인으로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도래 시 최대 12개월 만기 연장과 원리금 상환

유예가 가능하고, 최고 1.0%p까지 금리감면 혜택도 부여한다. 카드결제 대금 또한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또 군산 지역 영업점에 피해복구 금융지원전담창구를 운영해 빠른 상담을 통한 신속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백종일 은행장은 "전북은행의 이번 금융지원이 화재 피해를 본 고객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면서 "피해 극복을 위해 지역 거점은행으로서 전북은행이 항상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전주매일 환경캠페인

**우리에게 큰 선물을
안겨다주는 대자연
가꿔나가야 합니다**